

##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칸트의 『인간학』 - 『인간학』에서 재구성된 칸트의 경험적 인식 이론\*

홍우람\*\*

### I. 들어가는 말

1796년 여름 강의를 끝으로 은퇴한 노년의 칸트는 지난 20여 년간 애정을 쏟아 강의했던 인간학 과목 강의록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들여 정리를 마친 강의록을 마침내 단행본으로 출판하기로 마음먹는다.<sup>1)</sup> 이렇게 인간학 강의록을 바탕으로 1798년 출판된 책이 바로 『실용적 관점에서 본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4083120).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Cf. Kuehn(2001, 393). 칸트의 인간학은 출판 전부터 이미 많은 대중의 기대를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797년 9월 칸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이스터(J. G. Biester)는 “독서계는 당신의 인간학을 매우 환영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같은 해 11월 티프트룽크(J. H. Tieftrunk)는 “대중은 당신의 인간학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서한집』 AA XII 202, 219). 칸트 저작은 베를린 학술원판(AA로 표기)을 참조 및 인용하되, 『순수이성비판』은 Felix Meiner 판을 참조하여 관례에 따라 A/B로 표기한다.

인간학』(이하 『인간학』으로 약칭)이다.

『인간학』 초판은 2,000부 가량 발행되었다. 칸트가 이전에 발표한 그 어떤 책보다 많은 부수를 발행했는데도 『인간학』 초판은 성공적으로 판매되었고, 초판의 성공에 힘입어 2년 뒤 『인간학』 재판이 1,800부 가량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대중적 인기와 별개로 학계의 반응은 냉랭했다. 『인간학』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도, 『인간학』을 다룬 주목할 만한 연구도 등장하지 않았다.<sup>2)</sup> 1799년 술라이어마허의 대단히 비판적인 서평이 발표되었지만<sup>3)</sup> 그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학계의 추가 반응도 없었다. 전통적으로 칸트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인간학』이라는 저작의 근본적 성격에서 찾곤 했다. 『인간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반박하고 특정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이론서가 아니라 단순히 잡다한 “정보 전달을 위한 실용서<sup>4)</sup>”로 간주되었기에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인간학』은 많은 칸트 연구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칸트가 그 어떤 강의보다 인간학 강의에 애정을 쏟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순수이성비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강의한 적 없던 칸트가 『인간학』에 대해서는 교수 취임 이후 은퇴하기까지 매년 강좌를 개설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sup>5)</sup> 『인간학』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칸트 철학의 또 다른 측면을 『인간학』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인간학』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칸트 윤리학과 『인간학』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몇몇 학자들은 칸트 윤리학이 아닌 칸트 인식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간학』의

2) Brandt(1999, 7).

3) 『인간학』이 출판된 이후 약 1년 반 동안 서평이 대략 11편 발표되었다(Frierson, 2003, 1). 그 중 가장 중요한 술라이어마허의 서평은 *Athenaeum* 2(1799), 300-306에 게재되었다. 이 서평에서 술라이어마허는 칸트의 『인간학』이 “체계적인 동시에 대중적이어야 한다”(Brandt & Stark, 1997, xxii)는 불가능한 과제를 수행하려 했다고 비판한다.

4) Brandt(1999, 7).

5) Wilson(2006, 1).

의의를 밝히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간학』에 담긴 경험적 인식 이론의 한계 그리고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II장에서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의 기원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III장에서 『인간학』의 구성과 이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학』이라는 저작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련한 다음 우리는 IV장에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학』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시도들은 『인간학』에 담긴 경험적 인식 이론을 『순수이성비판』과의 연관성 속에서 재구성하는데, 우리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시도를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V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두 가지 시도의 한계를 밝히는 동시에 『인간학』에 담긴 경험적 인식 이론의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 II. 인간학적 기획의 기원

1793년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이하 『종교론』으로 약칭)를 발표한 칸트는 스토이틀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순수 철학적 탐구 과제, 즉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형이상학), 2)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덕), 3)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종교)”라는 세 가지 과제 중 셋째 과제를 비로소 완수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오래전에 구상했던” 철학적 기획이 이 『종교론』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칸트는 분명히 밝힌다. 세 가지 과제는 다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넷째 과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 가지 과제가 각각 형이상학, 도덕, 종교라는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넷째 과제 역시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데, 칸트는 그 분야를 바로 “내가 이미 20년 이상 전부터 매년 강의해온 인간학”이라고 말한다.<sup>6)</sup> 그렇다면 칸

6) 『서한집』 AA XI 429. 또한 『순수이성비판』 A 804-805/B 832-833; 『논리학』 AA IX 25; 『형이상학 강의』 AA XXVIII 533-534 참조 셋째 과제가 『종교론』으로 완수했다면, 첫째 과제와

트는 『종교론』으로 셋째 과제를 완수하고자 했듯이 『인간학』으로 마지막 과제를 완수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인간학』은 칸트 자신의 인간학 강의록에 바탕을 두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칸트는 이 편지를 쓴 뒤 5년이 지나서야 『인간학』을 발표했다. 더구나 잘 알려진 것처럼 『인간학』에서 칸트는 형이상학적·도덕적·종교적 과제를 총괄하는 철학적 과제, 즉 ‘철학적’ 인간학의 과제를 수행하기보다 경험적 관점에서 인간을 규명하고 삶에 유용한 지침을 마련하는 ‘영리적’ 과제, 즉 ‘실용적’ 인간학의 과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편지를 쓰면서 칸트가 『인간학』으로 자신의 마지막 철학적 기획을 완수하고자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편지는 적어도 『인간학』이 칸트의 철학적 기획에서 갑작스럽게 돌출된 저작 혹은 칸트 철학의 본류에서 완전히 벗어난 있는 저작이 아님을 알려준다. 이 편지에서 칸트는 오래전부터 인간학적 과제를 자신의 철학적 기획의 주요 부분으로 구상해왔다고 밝힐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학적 과제를 어쨌든 『인간학』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인간학 강좌와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 『인간학』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저작의 뿌리가 되는 인간학 강좌를 칸트가 어떤 의도로 기획했으며 그런 인간학적 기획을 칸트는 어떻게 자신의 철학적 기획과 연관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학 강좌는 칸트가 오랜 강사 생활 끝에 1770년 교수로 취임한 뒤 야심차게 개설한 강좌다. 칸트는 1772~23년 겨울학기 인간학 강좌를 처음 개설한 이후 은퇴하기 직전 1795~96년 겨울학기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인간학 강좌를 개설했다. 인간학 강좌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 칸트는 1773년 말 헤르츠

---

둘째 과제는 각각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으로 완수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완수된 첫째 과제를 칸트가 ‘인식론’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순수이성비판』이 이성의 순수한 인식에 대한 비판, 즉 형이상학적 인식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순수 이성 비판”이란 “이성이 모든 경험에서 독립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인식과 관련하여 이성 능력 일반을 비판”하고, 나아가 “형이상학 일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하고 형이상학의 원천뿐만 아니라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순수이성비판』 Axi).

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옮겨올 두 번째로 인간학을 강의하는데, 이번에는 인간학을 본격적인 학문 분야로 만들 생각이네. …… 인간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의 원천, [즉] 도덕과 숙련, 교제 그리고 인간을 교육하고 통제하는 방법의 원천, 그러므로 모든 실천적인 것의 원천을 밝히는 것이 내 목적이라네. 그래서 인간학에서 나는 인간 본성의 수정 가능성에 대하여 제1근거를 탐구하기보다 현상과 그 법칙을 탐구하네. 그러므로 신체 기관이 사유와 결합되는 방식에 관한 미묘한 연구는, 내가 보기에 영원히 무익한 것으로, 완전히 제외된다네. 나는 수강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경험을 나의 진술과 부단히 비교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결코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일상적 삶에서의 관찰 자체에 집중할 것이네. 여가시간에 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보기에 대단히 흥미로운 이 관찰연구로 숙련과 영리함 그리고 심지어 지혜에 대한 예행연습을 마련하고 있다네.<sup>7)</sup>

이 편지에서 칸트는 인간학 강좌를 통해 ‘인간학’을 별개 정규 학문으로 당당히 정립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이 포부는 당대에 등장했던 다양한 인간학적 논의들에 대한 칸트의 깊은 반성을 담고 있다. 칸트는 기존의 인간학적 논의가 별개 정규 학문으로 정립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칸트가 이 편지에서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기존의 인간학적 논의는 플라트너의 『의사와 철학자를 위한 인간학』이었다.<sup>8)</sup> 칸트는 플라트너의 인간학적 논의는 신체와 영혼의 결합에 대한 ‘무익한’ 논의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sup>9)</sup> 다른 한편으로 칸트가 암묵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경험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시되는 인간학적 논의였다. 볼프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된 경험 심리학적 인간학은 경험과 관찰에 근거하여 인간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데, 이 인식은

7) 『서한집』 AA X 145-146.

8) *Anthropologie für Ärzte und Weltweise* (1772). 헤르츠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1773년 *Allgemeine deutsche Bibliothek* XX, No.1, 25-51에 게재했는데, 칸트는 위 편지에서 그 서평을 읽었다고 밝힌다.

9) 플라트너의 인간학적 주장에 대해서는 Sturm(2009, 69-79)과 Zammito(2002, 250-253) 참조.

단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 언제나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의 일부로만 여겨졌다.<sup>10)</sup> 따라서 칸트는 볼프의 제자 바움가르텐의 『형이상학』을 자신의 형이상학 강좌와 인간학 강좌 교재로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인간학을 독자적인 정규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경험 심리학적 인간학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다.<sup>11)</sup>

기존의 인간학적 논의와 차별화되어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될 인간학은 칸트에 따르면 경험과 관찰에 기초한 학문이지만, 인간과 관련하여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학문이 아니라 ‘모든 실천적인 것’에 대한 원천과 지혜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실천적인 것은 윤리나 도덕에 한정되지 않고 숙련, 교제, 교육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모든 인간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세상살이와 연관된 모든 인간 행위에 대한 원천은 바로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발견된다. 요컨대 칸트가 새롭게 기획한 인간학은 경험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관찰해서 세상살이에 쓸모 있는 인간 행위에 대한 실용적 지혜를 제공하는 학문이며, 칸트는 인간학이 제공하는 이런 실용적 지혜를 “세계지”(die Kenntnis der Welt)<sup>12)</sup>라고 명명한다. ‘세계지’를 제공하는 학문으로서 인간학이 기획됨에 따라 그에 대한 강좌 역시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큰 의의를 지니게 된다. 인간학이 단순히 이론적 학문 체계로 그치지 않고 삶에 유용한 실용적 지혜를 제공해야 하는 한에서, 인간학 강좌는 그저 이론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래에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의 삶을 꾸려갈 대학생들이 유용한 실용적 지혜를 ‘여행연습’하는 강좌일 테니 말이다.

실용적 세계지에 대한 학문으로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칸트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런 기획이 칸트의 형이상학 강좌 중 경험 심리학 논의에서 기원했다는 여러 연구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새로

10)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경험적 심리학은 일종의 “응용 철학”으로서 “형이상학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순수이성비판』 A848/B876).

11) Brandt & Stark(1997, vii-ix).

12) 『서한집』 AA X 146.

은 인간학에 대한 칸트의 구상은 기존의 인간학적 논의, 특히 경험 심리학적 인간학 논의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것과 차별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이 경험 심리학적 논의에서 기원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이 다른 강좌, 특히 자연지리학 강좌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에도 역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자연지리학에서 기원을 찾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학 강좌가 개설되기 훨씬 전부터 자연지리학 강좌에서 이미 삶에 유용한 실천적 지혜를 탐구했다. 실제로 1757년 발표된 자연지리학 강좌 공고문에서 칸트는 자신의 강좌가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경향성, 인간의 선입견과 사유방식”을 다루지만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 더 친숙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라고 밝힌다.<sup>14)</sup> 더욱이 칸트는 앞서 인용한 헤르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간학은 자연지리학과 더불어 세계지라고 불리며 다른 모든 가르침과 구별된다고 말함으로써 인간학과 자연지리학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한다.<sup>15)</sup> 말하자면, 세계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별되며 자연지리학이 자연에 대한 세계지를 제공한다면 인간학은 인간에 대한 세계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었다.<sup>16)</sup> 따라서 경험 심리학적 논의에 대한 반성이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타당한 것처럼, 자연지리학적 논의에 대한 반성이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 역시 타당해 보인다.

13)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의 기원에 대한 논쟁은 베를린 학술원판 칸트전집 출판을 둘러싼 딜타이와 아디케스의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칸트 인간학 강좌의 기원을 아디케스는 경험 심리학에 대한 논의에서 찾은 데에 비해 딜타이는 자연지리학 강좌에서 찾았다. 이에 대해서는 Lehmann(1969, 13) 참조. 딜타이와 아디케스로 대변되는 논쟁의 흐름에 대한 개관은 Wilson(2006, 17) 참조. 최근에 경험 심리학적 기원을 주장하는 대표적 연구자가 브란트라면, 자연지리학적 기원을 주장하는 대표적 연구자는 윌슨이다(Brandt & Stark, 1997, xxiv; Wilson, 2006, 18). 국내 논문으로는 김수배(1994, 269-273)과 권오상(2013, 141-144) 참조.

14) 『자연지리학 강의 개요 및 서풍론』 AA II 9.

15) 『서한집』 X 146.

16) 『인간의 상이한 종』 AA II 443.

그렇다면 둘 중 어떤 해석이 올바른가? 이 문제는 칸트 인간학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금 이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과 관련하여 경험 심리학적 기원과 자연지리학적 기원 사이에서 반드시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의 기원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두 해석들 중 하나의 해석이 다른 하나의 해석을 논박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두 해석들의 타당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흥미롭게도 라우든은 두 해석을 모두 수용하면서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이 경험 심리학적 논의와 자연지리학적 논의 둘 다에서 기원했다고 설명한다.<sup>17)</sup> 이런 포괄적 설명이 흥미로운 이유는 인간학적 기획에 담긴 칸트의 의도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잡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학』의 풍성한 논의들을 전비판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칸트의 다양한 관심사와 연관시킴으로써 우리는 비판기 칸트의 다양한 철학적 주장들과 적절히 연관되도록 인간학적 논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간학』에서의 인식 능력에 대한 경험 심리학적 논의에 주목하고 그것을 『순수이성비판』의 인식론적 논의와 연결시키려는 시도 역시 그런 재구성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III. 『인간학』의 구성과 이념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학』을 『순수이성비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시키려고 시도하는 학자들은 『인간학』 제1편, 그중에서도 “인식 능력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진 제1권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를 『인간학』이라는 저작 전체와 관련해서 올바르게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간학』의

17) Louden(2000, 63).



전체 구성과 이념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학』은 제1편 ‘인간학적 교수론’과 제2편 ‘인간학적 성격론’으로 구성된다. 인간학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은 칸트가 오랜 인간학 강의에서 일관되게 채택했던 방식이지만, 칸트가 두 부분의 연관성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간학』에서는 두 부분이 어떻게 서로 관계 맺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며, 인간학 강의에서도 역시 두 부분의 상호관계가 분명한 원리나 이념에 따라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sup>18)</sup>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교수론’과 ‘성격론’으로 이루어진 『인간학』의 구성이 하나의 이념에 따른 체계적 기획의 산물이라기보다 임의적 기획의 산물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sup>19)</sup> 그렇지만 『인간학』의 두 부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수론’과 ‘성격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칸트의 『인간학』 수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2편 ‘인간학적 성격론’이 시작되는 페이지 여백에 칸트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두었다.

인간학. 제1부. 인간학적 **교수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2부. **성격론**. 각 인간의 특성은 어떻게 알려지는가.  
 말하자면 제1부는 인간학의 요소론, 제2부는 인간학의 방법론이다.<sup>20)</sup>

‘요소론/방법론’의 구성 방식은 전통적 논리학의 구성 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요소론’은 논리학의 이론적 혹은 교의적 부분에 해당하는 데 비해 ‘방법론’은 논리학의 실천적 혹은 기술적 부분에 해당한다.<sup>21)</sup> 잘 알려진 것처럼 칸트는 이 ‘요소론/방법론’의 구성 방식을 비판서 세 권을 비롯한 자신의 대표

18) Brandt and Stark(1997, xxiv-xxxi) 참조.

19) 예컨대 Brandt and Stark(1997, xxx) 참조. 심지어 브란트는 ‘교수론’과 ‘성격론’의 세부 절들의 관계 역시 임의적이라고 주장한다. Brandt(1999, 32) 참조.

20) 『인간학』 AA VII 412.

21) 『논리학』 AA IX 18.

적 저작들에서 채택했다. 그런데 위 메모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학』의 구성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론’은 ‘요소론’에 해당하고 ‘성격론’은 ‘방법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22)</sup>

『인간학』 제1편 ‘교수론’이 요소론으로서 이론적 성격을 지니고, 제2편 ‘성격론’이 방법론으로서 실천적 성격을 지닌다는 칸트의 체계적 기획은 인간학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예컨대 1775~76년 겨울학기 인간학 강의에서 칸트는 강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영혼의 힘(Seelenkräften)과 능력에 따라 인간에 대해 배웠으니, 이제 특수한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고 사용하고자 해야 한다”<sup>23)</sup>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간학』을 구성하는 두 부분, 즉 이론적 부분인 ‘교수론’과 실천적 부분인 ‘성격론’의 관계는 일반과 특수 관계 그리고 이론과 적용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교수론’은 인간의 심리적 능력을 경험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고찰한다. 말하자면 ‘교수론’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경험 심리학적 이론을 담고 있다. 그에 반해서 ‘성격론’은 특수한 인간 혹은 인간 집단의 특성을 다룬다. ‘교수론’에서 다룬 심리적 능력을 소유하는 인간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무슨 고유한 특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소유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성격론’의 과제다.

‘교수론’의 논의를 전제로 인간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특성을 세계 내의 구체적 삶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성격론’은 동시에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의 가능성을 경험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따라서 칸트 인식론이 아닌 칸트

22) 『인간학』 제1편과 제2편을 각각 요소론과 방법론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간학』의 내용을 하나의 이념에 따라 해석하려는 재구성적 시도로서, 그 나름대로의 한계도 지닌다. 무엇보다 실제로 요소론과 방법론의 구성이 명기된 『순수이성비판』이나 『실천이성비판』에 비해 『인간학』의 세부 내용들을 요소론과 방법론의 구성에 따라 일관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학』을 요소론과 방법론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인간학』에 담긴 잡다한 내용을 선별해서 칸트의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포착해내려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23) 『인간학 강의』 XXV-1 AA 624.

윤리학과 관계에서 『인간학』의 철학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교수론’보다 ‘성격론’에 더 주목한다. 물론 그렇다고 ‘성격론’과 달리 ‘교수론’은 칸트 윤리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성격론’과 ‘교수론’은 모두 행복 실현을 위한 인간지의 습득과 적용이라는 『인간학』의 이념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학』의 전체 구성을 관통하는 이념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인간학』은 ‘실용적 인간학’에 대한 기본적 규정을 제시하며 시작된다. 칸트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지식을 발휘할 궁극적 대상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 자신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유한한 피조물인 동시에 합리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인간지”(Menschenkenntnis)라고 부른다. 인간지는 “세계지”(Weltkenntnis)의 일부이며, 인간학은 바로 이런 인간지의 이론적 체계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은 무엇인가? 칸트는 실용적 인간학을 생리학적 인간학과 구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에 대해 체계적으로 작성된 지식 이론(인간학)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본 것이거나 아니면 **실용적 관점**에서 본 것일 수 있다. - 생리학적 인간지는 **자연**이 인간으로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고, 실용적 인간지는 자유로운 행위자인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 무엇을 이루어 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다.<sup>24)</sup>

칸트 시대에 ‘생리학’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자연학을 가리키거나 좁은 의미에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을 의미했다.<sup>25)</sup> 이런 생리학적 관점을 채택한 인간학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773년 헤르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칸트가 비판했던 플라트너의 인간학이다. 플라트

24) 『인간학』 AA VII 119.

25) Brandt(1999, 59).

너의 인간학은 칸트가 무익한 주제라고 일축했던 육체와 영혼의 상호작용, 특히 정신 현상의 육체적 원인을 연구하고, 그에 의거하여 정신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sup>26)</sup>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리학적 인간학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의 “자연 원인에 대해 숙고”하여 과연 자연이 인간으로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 규명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인간 육체의 생리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인간 현상의 자연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고, 결국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규명하려던 지금까지의 시도는 이런저런 억측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런데 생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규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칸트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했던 점은 그들이 인간 현상에 대해 억측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 현상에 대해 “순전한 구경꾼”의 자세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 현상에 대한 관찰로 규명되는 자연적 인과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어찌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연이 하는 대로 맡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런 자연적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지식 습득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이렇게 이론적 습득에만 그칠 경우, 인간지는 적어도 “문화적 진보”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문화적 진보를 위해서 인간학은 인간지를 “세계를 위해”, 즉 인간을 위해 실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간지의 실천적 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생리학적 인간학의 시도는 적어도 문화적 진보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헛수고”로 그칠 뿐이다.<sup>27)</sup>

생리학적 관점과 달리 실용적 관점을 채택한 인간학은 자연이 인간으로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단순히 자연적 인과관계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유로운 행위자다. 자유로운 행위자인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 규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관찰할 때, 인간은 사물을 관찰하듯이 한 걸음 떨어져 방관하는 구

26) Sturm(2009, 76-77).

27) 『인간학』 AA VII 119.

경꾼의 자세만 취하고 있을 수 없다. 실용적 인간학이 취해야 할 관찰 태도는 이론적 호기심에 따르는 구경꾼의 태도가 아니라 실천적 목적을 견지한 당사자의 태도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내는지 규명하려는 시도는 인간지의 이론적 습득을 위한 사변적 시도가 아니라 인간지의 실천적 사용을 위한 목적 지향적 시도다. 따라서 실용적 인간학은 인간 현상에 대한 현재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며(können) 무엇을 이루어 내야 하는지(sollen), 즉 인간의 가능성과 사명을 규명한다.

요컨대, 생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실용적 관점을 따르는 인간학은 실천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여기서 ‘실천적’이라는 말을 ‘도덕적’ 혹은 ‘윤리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할 경우 실용적 인간학은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정초』(이하 『정초』로 약칭)에서 윤리학의 “경험적 부분”이라고 규정했던 “실천적 인간학”과 동일시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8)</sup> 그러므로 실천적 성격을 지니는 실용적 인간학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관점이 생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도덕적 관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초』에서 칸트는 어떤 행위에 대한 명령을 각 행위의 성격에 따라 세 종류로 구별했다. 첫째 종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기술적” 명령, 둘째 종류는 “복지에 관한” 것으로 “실용적” 명령, 셋째 종류는 “자유로운 행동 일반, 즉 도덕에 관한” 것으로 “도덕적” 명령이라고 부른다.<sup>29)</sup> 칸트에 따르면, 기술적 명령은 임의의 목적, 즉 합리적이건 아니건 선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저 인간에게 가능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으로서 “숙련의 규칙”<sup>30)</sup>이라고 불린다. 이 경우 목적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일 뿐 모든 인간이 실제로 소유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인간 일반의 관점에서 보

28) 『정초』 AA IV 388.

29) 『정초』 AA IV 416-417.

30) 『정초』 AA IV 416.

면 단지 “가능한” 목적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서 실용적 명령은 비록 개인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실제로” 소유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이다.<sup>31)</sup> 모든 인간이 실제로 소유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행복이며, 칸트는 행복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행위를 지시하는 실용적 명령을 기술적 명령과 구별하여 “영리함의 충고”<sup>32)</sup>라고 부른다. 그런데 칸트에 따르면, 영리함에 근거한 실용적 명령은 행복 실현을 위한 “실천적 필연성”<sup>33)</sup>을 지니기는 하지만 도덕적 명령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실용적 명령과 달리 도덕적 명령은 어떤 별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sup>34)</sup> 행위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구별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우리는 칸트가 ‘실용적 인간학’이라는 이름으로 확립하고자 했던 새로운 학문 분야가 무엇인지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실용적 인간학이 ‘인간학’이라는 학문의 일종으로서 인간지에 대한 이론 체계임을 확인했다. 나아가 우리는 실용적 인간학이 생리학적 인간학과 달리 인간지에 대한 이론적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지의 실천적 사용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렇다면 실용적 인간학이 추구하는 실천적 사용이란 무엇인가? 『정초』의 구별에 따르면, 실용적 인간학은 도덕에 관한 인간학이 아니라 행복에 관한 인간학이다. 따라서 실용적 인간학은 인간지를 실천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인간의 공통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용적 인간학은 윤리학의 경험적 부분으로서 도덕적 명령의 경험적 적용을 모색하는 도덕적 인간학이 아니다. 도덕적 명령보다 실용적 명령에 더 관심을 두는 실용적 인간학은 행복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따라 인간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그 지식의 경험적

31) 『정초』 AA IV 415.

32) 『정초』 AA IV 416.

33) 『정초』 AA IV 415.

34) 『정초』 AA IV 414.

적용을 모색하는 “영리의 학”<sup>35)</sup>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sup>36)</sup>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용적 인간학이 도덕적 인간학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인간학과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칸트 연구자들은 실용적 인간학이 도덕적 인간학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실용적 인간학이 도덕적 인간학의 일부를 다룬다거나 도덕적 인간학에 기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학』과 칸트 윤리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한다.<sup>37)</sup> 칸트의 윤리학은 본래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sup>38)</sup>에 대한 이론이다. 각각의 방식으로 인간지를 다루는 ‘교수론’과 ‘성격론’은 모두 『인간학』의 일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도덕적 명령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가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추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분명히 전체로서 『인간학』은 칸트의 윤리학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윤리적 규범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려면 과연 그가 그런 규범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sup>39)</sup>

35) 김수배(1995, 176).

36) 앞서 살펴봤듯이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은 세상살이에 쓸모 있는 지혜를 제공하려는 실용적이고 교육적인 관심에서 기원했으므로 『인간학』 머리말의 진술에 근거해서 칸트 인간학의 이념을 ‘행복 실현을 위한 영리의 학’으로 규정하는 것은 칸트의 본래 기획과 잘 부합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과연 『인간학』 본론의 실제 내용과도 잘 부합하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슈라이어마허가 리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인간학』 본론의 내용은 요약하기 힘들 만큼 “사소한 소재들을 모아놓은 것”(Kuehn, 2006, x)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 인간학의 이념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본론 내용을 해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모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재구성은 다시 연구자들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37) 대표적으로 Louden(2000, 71-76) 참조. 또한 Louden(2018, 104-109); Brandt(1991, 77-78); Wood(2003, 40-41) 참조.

38) 『실천이성비판』 AA V 130.

39) 『윤리학 강의』 AA XXVII 244 참조.

## IV.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

사실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인간학』을 칸트의 윤리학과 연관시키는 것은 비록 논쟁의 여지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학』을 『순수이성비판』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떻게? 행복 실현을 위한 영리의 학이라는 실용적 인간학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시도는 일견 엉뚱하게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인간학』 제1편 ‘교수론’의 목표가 인간 본성, 특히 인간의 심리적 능력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런 ‘교수론’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고찰한다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에 의해 가능하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나’에 대한 표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지상의 다른 모든 생물보다 무한히 우위에 선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인격이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 중에도 의식을 통일하여 하나의 동일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지위와 존엄성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사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다.<sup>40)</sup>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 덕분에 인간은 다른 모든 존재와 달리 하나의 인격을 이뤄서 다른 존재와 차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지성 측면, 취미 측면 그리고 실천적 측면으로 발현되므로 인간의 심리적 능력에 대한 고찰도 이 세 측면에 따라 각각 “논리적이거나 미감적이거나 실천적인”<sup>41)</sup>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1편 교수론은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른 세 가지

40) 『인간학』 AA VII 127.

41) 『인간학』 AA VII 128.



고찰로 구성된다. 특히 제1편의 제1권은 논리적 관점에서 인식 능력을 고찰하는데, 『인간학』에서 『순수이성비판』과의 연관성을 찾으려 시도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제1권에 주목하고 거기서 칸트의 경험적 인식 이론을 재구성해 낸다.

### 1. 선형적 인지 구조와 경험적 인지 구조의 관계에 따른 재구성

다양한 인식 능력에 대한 『인간학』의 논의를 『순수이성비판』의 인식론적 주장과 연결시키는 재구성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의 재구성 방식에 따르면 다양한 인식 능력들에 대한 『인간학』의 경험적 분석은 인간 인식의 경험적 구조를 드러내며, 이 경험적 구조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인간 인식의 선형적(transzendental) 구조가 경험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슈미트는 “칸트가 인간의 인식 능력의 선형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구별”했으며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다양한 선형적 기능들은 “인간 의식의 경험적 능력들에게 인식 능력이 되기 위한 필수적 구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sup>42)</sup> 슈미트에 따르면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인간 인식의 선형적 구조란 인간이 인지적 행위자이기 위해 인간의 마음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인식 능력의 구조를 말하며, 『순수이성비판』은 그런 인간의 선형적 인지 구조에 대한 이론, 즉 선형적 심리학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학』에서 제시된 경험적 인식 이론은 “경험적 심리학”<sup>43)</sup>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양한 인식 능력에 대한 『인간학』의 경험적 분석은 인간의 선형적 인지 구조가 경험적으로 발현된 것에 대한 분석, 즉 경험적 인지 구조에 대한 분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슈미트의 해석이 옳다면 이제 『순수이성비판』과 『인간학』은 인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연속선상에 놓인다. 『인간학』은 『순수이성비판』과 더불어 칸트의 인지 심리학적 기획에서 주요 부분을 맡게

42) Schmidt(2008, 463).

43) Schmidt(2008, 463, 471, 472). 여기서 슈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선형적 심리학을 『인간학』의 경험적 심리학과 대조해서 ‘인식론’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되는 것이다.

슈미트는 『인간학』 제1편 제1권에서 다루지는 각각의 인식 능력들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 즉 『인간학』에서 제시된 경험적 인지 구조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선험적 인지 구조의 발현이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시도한다. 하지만 『인간학』에서 자기의식, 감각, 상상력 그리고 지성으로 이어지는 인식 능력들에 대한 논의 중 슈미트의 주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감각에 대한 논의, 특히 촉각과 시각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슈미트는 촉각과 시각이 공간에 대한 직관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감성론의 핵심적 주장, 즉 공간은 감성적 직관의 아프리오리한 형식이라는 주장과 연관시킨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인간 인식의 선험적 구조를 요소별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인간 인식은 단순히 서로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종(種)적으로 구별되는 감성과 지성이라는 두 인식 능력들이 협력한 결과임을 천명한다.<sup>44)</sup> 따라서 ‘선험적 감성론’은 이중적인 두 인식 능력들 중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감성이 아프리오리하게 인식에 기여하는지 논의한다. 칸트는 선험적 감성론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선험적 감성론에서 우리는 우선 지성이 자신의 개념에 의해 생각한 모든 것을 분리함으로써 감성을 **고립**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경험적 직관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다시 이 경험적 직관에서 감각에 속하는 모든 것을 떼어 낼 것이고, 그에 따라 감성이 아프리오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순수한 직관과 현상의 순수한 형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아프리오리한 인식의 원리로서 감성적 직관의 순수한 두 형식, 즉 공간과 시간이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를 검토하는 데에 매진할 것이다.<sup>45)</sup>

44) 『순수이성비판』 A19/B33.

45) 『순수이성비판』 A22/B36.

인식에 대해 감성이 아프리오리하게 기여한 몫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칸트는 2단계의 분리과정을 제안한다. 첫째는 이중적인 인식 능력인 지성이 기여한 몫을 분리하여 인식에서 ‘감성이 기여한’ 몫만을 남기는 것이고, 둘째는 감성이 기여한 몫에서 경험적 요소, 즉 감각을 제거하여 감성이 인식에 ‘아프리오리하게 기여한’ 몫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2단계의 분리과정을 거쳐 감성이 아프리오리하게 인식에 기여한 몫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감성의 순수한 형식, 즉 시간과 공간이며,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각각 “내감의 형식”과 “외감의 형식”으로 구별한다.<sup>46)</sup>

『인간학』에서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무시된 감성의 경험적 요소, 즉 ‘감각’에 주목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성과 지성을 종적으로 구별한 다음,<sup>47)</sup> 감성을 다시 두 가지 인식 능력, 즉 감각능력과 상상력으로 구별한다.

인식 능력 중 **감성**(직관에 속하는 표상의 능력)은 두 부분, 즉 **감각능력**과 **상상력**을 포함한다. - 전자는 대상이 현존하는 중에 직관하는 능력이고, 상상력은 대상이 현존하지 **않는** 중에도 직관하는 능력이다. - 그러나 감각 능력은 다시 **외감과 내감**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간의 신체가 물체적 사물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의 감각능력이고, 후자는 인간의 신체가 마음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의 감각능력이다.<sup>48)</sup>

『순수이성비판』을 따라서 감각능력을 외감과 내감으로 구별한 칸트는 이제 경험적 관점에서 외감을 세세하게 분석한다. 감성이 인식에 아프리오리하게 기여하는 몫에만 관심을 가졌던 『순수이성비판』과 달리 『인간학』은 외감이 인식에 경험적으로 기여하는 몫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칸트는 경험적 직관능력으로서 외감을 “생명감각의 감각능력과 기관감각의 감각능력”으로

46) 『순수이성비판』 A33/B49, A25/B41.

47) 『인간학』 AA VII 140-141.

48) 『인간학』 AA VII 153.

구별하고 특히 후자에 관심을 쏟는다. 기관감각의 감각능력이란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부르는 감각능력을 가리키는데, 칸트는 다시 이 오감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객관적인 감각능력이 “촉발된 기관의 의식을 활성화하기보다 외적 대상의 인식에 기여”하는 감각능력이라면, 주관적인 감각능력은 외적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표상이 아니라 촉발된 기관의 의식을 활성화해서 외적 대상을 “향유하기 위한 표상”을 제공하는 감각능력이다. 오감 중에서 전자에 속하는 것이 촉각과 시각과 청각이라면, 후자에 속하는 것은 미각과 후각이다.<sup>49)</sup> 슈미트는 특히 촉각과 시각이 대상을 공간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감각능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런 객관적 감각능력이 ‘공간’이라는 외감 형식이 발현된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인간학』에 따르면 촉각은 “직접적인 외적 시각”을 제공하는 “유일한 감각능력”으로서 “가장 거친” 감각능력이지만, 외적 대상의 표면을 접촉함으로써 외적 대상의 공간적 형태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감각능력이기도 하다.<sup>50)</sup> 따라서 칸트는 촉각 없이는 “물체적 형태에 대해 어떤 개념도 만들 수 없”으며, 다른 두 객관적 감각능력인 시각과 청각은 촉각의 기능을 전제할 경우에만 경험적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51)</sup> 촉각과 달리 시각과 청각은 원거리 감각능력이며, 특히 시각은 촉각과 “가장 멀리 떨어진” 감각능력, 즉 감각기관이 “가장 덜 촉발된 채로” 감각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칸트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각은 “순수 직관”과 가장 가까운 감각능력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순수 직관’이란 “주어진 객관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나 주목할 만한 감각이 섞이지 않은 표상”, 말하자면 어떤 대상의 형태에 대한 순수한 공간 표상을 말한다.<sup>52)</sup> 다른 감각에 비해 그 정도가 덜하다 하더라도 시각

49) 『인간학』 AA VII 154. 뒤에서 다시 지적하겠지만 객관적 감각능력과 주관적 감각능력의 구별은 종류상의 구별이 아닌 정도상의 구별, 즉 상대적인 구별이다.

50) 『인간학』 AA VII 154-155.

51) 『인간학』 AA VII 154-155.

52) 『인간학』 AA VII 156.

에서도 역시 촉발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슈미트가 지적하듯이,<sup>53)</sup> 인간의 시각은 그런 순수 직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각은 가장 순수 직관에 가깝게 어떤 대상의 공간적 형태에 대한 직관을 제공한다.

이렇게 슈미트는 촉각과 시각이 경험적 대상의 공간적 형태를 지각하는 감각능력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는 『인간학』의 설명에 주목하고, 촉각과 시각의 경험적 인지 기능은 바로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감성의 선험적 구조가 발현된 것, 특히 공간을 형식으로 갖춘 외감의 선험적 인지 기능이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사한 방식으로 『순수이성비판』과 『인간학』을 오가며 자기의식, 상상력 그리고 지성에 대한 칸트의 주장을 검토한 후에 결국 슈미트는 “칸트가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순수이성비판』과 『인간학』으로 나누고서 선험적 인지 심리학과 경험적 인지 심리학 사이의 체계적인 구별 및 상호관계를 그려 낸다”<sup>54)</sup>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슈미트의 이런 분석을 통해 과연 슈미트의 결론대로 인간의 선험적 인지 구조와 경험적 인지 구조 사이의 ‘발현’ 관계가 올바르게 입증되는지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루고, 『순수이성비판』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을 재구성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확인해보자.

## 2. 아при오리한 조건과 경험적 조건의 관계에 따른 재구성

둘째의 재구성 방식에 따르면 다양한 인식 능력들에 대한 『인간학』의 경험적 분석은 인간 인식의 경험적 조건을 드러내며, 이 경험적 조건은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인간 인식의 아при오리한 조건에 대한 분석을 보충한다. 대표적으로 잔코비악과 왓킨스는 『순수이성비판』의 관심사는 인간의 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아при오리한 조건을 밝히는 데에 있으며, 『인간학』은 『순수이성비판』에서 배제된 인간 인식의 경험적 조건을 다룸으로써 칸트의 인식론

53) Schmidt(2008, 467).

54) Schmidt(2008, 472).

적 기획을 완성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칸트의 선험 철학에서 “칸트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인식의 일종인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며, 다양한 인식 능력에 대한 “인간학적(그리고 경험적-심리학적) 설명”은 경험이 가능하기 위한 “아프리오리한 조건들에 대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선험적 설명을 증대”하고,<sup>55)</sup> 따라서 『인간학』과 『순수이성비판』은 칸트의 전체 인식론적 기획을 상보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잔코비악과 왓킨스는 『인간학』 제1편 제1권의 여러 인식 능력들에 대한 논의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각각의 인식 능력들과 관련된 인간 인식의 경험적 조건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하는데, 이 시도는 슈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각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때 가장 성공적으로 부각된다. 그들은 감성의 시공간 형식이 모든 인간 인식의 아프리오리한 조건이라는 『순수이성비판』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학』의 주장을 감각에 대한 논의 중에서 발견한다. 그들이 『인간학』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주관적 감각능력과 객관적 감각능력에 대한 구별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객관적 감각능력은 외적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표상을 제공하는 감각능력이고 주관적 감각능력은 외적 대상을 향유하기 위한 표상을 제공하는 감각능력이다. 간단히 말해서 객관적 감각능력이 ‘대상에 대한’ 표상을 제공한다면, 주관적 감각능력은 대상이 주관을 촉발하는 방식에 대한 표상, 즉 ‘주관에 대한’ 표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sup>56)</sup> 그런데 우리는 이 구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객관적 감각능력의 ‘객관성’이란 대상에 대한 표상 내용의 ‘정확성’과는 다르다.<sup>57)</sup> 즉, 객관적 감각능력과 주관적 감각

55) Jankowiak & Watkins(2014, 62). 이 논문은 사실 『인간학』이 아닌 『인간학 강의』(AA XXV-1, XXV-2)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둘의 내용이 서로 겹치는 한에서 이 논문의 주장은 『인간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56) Jankowiak & Watkins(2014, 61, 66) 참조 또한 『인간학 강의』 AA XXV-2 1242 참조

57) “그래서 우리는 (1) 어떤 대상의 속성들에 대한 것인 (그런 속성들에 의해 주관이 촉발되는 방식에 대한 것과 반대되는) 표상 내용과 (2) 어떤 대상의 속성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단

능력의 구별은 어떤 감각능력에 의해 제공되는 표상이 주관에 관한 표상인지 혹은 객관에 관한 표상인지 여부에 따른 구별이지 그 표상 내용이 대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혹은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른 구별이 아니다. 둘째로, 객관적 감각능력과 주관적 감각능력의 구별은 종류상의 구별이 아닌 정도상의 구별, 즉 상대적인 구별이다.<sup>58)</sup> 따라서 모든 감각능력은 어느 정도는 주관에 대한 표상이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는 객관에 대한 표상이다. 다만 촉각과 시각과 청각은 객관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미각과 후각은 주관에 대한 표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할 뿐이다. 요컨대, 모든 감각능력, 특히 오감은 정도가 크진 작진 대상에 대한 표상이며, 각각의 감각은 시공간이라는 직관 형식을 통해 주어지는 외적 대상들에 대해 구체적인 질료를 제공한다.

잔코비악과 왓킨스는 객관적 성격이 강한 세 가지 외적 감각능력, 즉 촉각과 시각 그리고 청각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먼저 청각은 이 세 가지 객관적 감각능력 중에서는 가장 덜 객관적인 감각이다. 청각은 외적 대상의 실존과 공간적 특징에 대해 단지 막연한 표상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각은 시공간이라는 직관 형식에 따라 주어지는 외적 대상의 실존과 관련된 실질적인 표상, 즉 그 대상이 시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막연하지만 실제적인 표상을 제공한다. 공간과 관련해서 시각과 촉각은 더욱 객관적인 표상을 제공한다. 시각과 촉각은 외적 대상의 공간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공간적 형태에 대해서도 대단히 구체적인 표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sup>59)</sup> 잔코비악과 왓킨스에 따르면 이런 감각능력을

---

지 그런 대상과 주관 사이의 관계의 결과인 것과 반대되는) 표상 내용을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기와 모양 같은) 일차 성질의 표상들은 둘 다의 의미에서 객관적일 테지만, (색깔 같은) 이차 성질의 표상들은 오직 전자의 의미에서만 객관적일 것이다”(Jankowiak & Watkins, 2014, 66).

58) Jankowiak & Watkins(2014, 61) 참조.

59) Jankowiak & Watkins(2014, 62-68) 참조. 『인간학』에서 칸트는 이 세 가지 객관적 감각능력의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주관적 감각능력의 경우와 달리 “사람들이 타인과 쉽게 일치할 수”(『인간학』 AA VII 154)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주관적 감각능력에 비해 객관적 감각능력이 대상에 의한 주관의 촉발 방식에 덜 집중하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객관적 감각능

통해 제공되는 객관적 표상은 시공간 형식을 통해 주어지는 외적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외적 대상들이 시공간 형식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려주는 객관적 표상 없이는 그런 외적 대상들에 대한 경험적 인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경험적 인식의 “아프리오리하고 형식적인 조건”과 “경험적이고 질료적인 조건”을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이 구별에 따르면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전자의 조건은 경험적 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인간학』에서 제시된 후자의 조건은 경험적 인식이 “현실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인간 인식의 필요조건을 밝히려는 칸트의 선형 철학적 기획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제시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으며, 『인간학』은 『순수이성비판』과 마찬가지로 이 기획의 완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 V. 두 가지 시도의 한계 그리고 의의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의 기원과 『인간학』에 반영된 실용적 인간학의 이념을 확인하고, 『인간학』이라는 저작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인간학』과 『순수이성비판』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칸트 철학 체계 내에서 『인간학』의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를 살펴봤다. 인간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칸트의 기획과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윤리 혹은 도덕의 관점에서 『인간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그리 놀랍지 않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시도의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험적 인식 이론으로서의 『인간학』이 행복 실현을 위한 영리의 학이라는 실용적 인간학의 이념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선

---

력은 주관적 감각능력보다 더 ‘고귀한’(edel) 감각능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인간학』 AA VII 156 참조). 이와 관련해서는 Jankowiak & Watkins(2014, 63) 참조.



입견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선입견과 달리 칸트는 무려 『인간학』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다양한 인식 능력들에 대한 논의에 할애하고 있다. 『인간학』의 이런 편중된 구성은 사실 실용적 인간학의 이념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인간이 세계 내에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올바로 습득하는 일, 즉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일일 테니 말이다. 따라서 『인간학』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용적 인간학의 이념에 어긋나는 무리한 시도로 간주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시도가 과연 성공적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우선 첫째 시도의 경우 과연 이 시도가 성공적인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 시도의 핵심적 주장, 즉 『인간학』에서 제시된 경험적 인지 구조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제시된 선형적 인지 구조의 발현이라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학』에서 칸트는 선형적 관점에 따라 제시된 『순수이성비판』의 인식론적 입장들을 전제하기는 하지만 『인간학』은 철저히 경험적 관점에 따른 작업임을 강조한다.<sup>60)</sup> 따라서 『인간학』은 단지 다양한 인식 능력들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적 인지 구조에 대해서만 기술할 뿐 선형적 인지 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즉 선형적 인지 구조에서 어떻게 경험적 인지 구조가 발현되는지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런 발현 과정은 경험적으로 설명될 수도 없다. 선형적인 것에서 경험적인 것으로의 발현 과정이 오직 경험적인 과정으로 환원돼서 설명될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만일 『인간학』이 그런 발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지도 않으며 애초에 그런 설명이 가능하지도 않다면, 슈미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인식 능력들에 대한 『인간학』의 서술을 검토하면서 슈미트의 주장은 단순히 전제될 뿐 입증되지 않는다.

슈미트는 선형적 인지 구조가 경험적 인지 구조로 “발현된다”(expressed)

60) 예컨대, 『인간학』 AA VII 142-143 참조.

거나 혹은 선형적 인지 구조가 경험적 인지 구조를 “설정한다”(configure)는 표현을 사용하지만,<sup>61)</sup> 이런 설정과 발현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사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선형적 인지 구조를 담고 있는 인식 능력과 경험적 인지 구조를 담고 있는 인식 능력은 결국 하나의 동일한 인식 능력이기 때문이다. 감성 혹은 지성과 같은 인식 능력을 『순수이성비판』은 선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인간학』은 경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슈미트가 말하는 ‘발현’ 관계란 인간의 인식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선형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으로 구별되어 고찰될 수 있으며 선형적으로 고찰된 인지 구조는 경험적으로 고찰된 인지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두 측면은 결국 하나의 동일한 인지 구조의 측면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굳이 『인간학』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미 『순수이성비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험 일반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근거를 두는 인식의 세 가지 주관적 원천이 있는데, **감각능력**, **상상력** 그리고 **통각**이 그것이다. 이것들 각각은 경험적인 것으로, 즉 주어진 현상들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고찰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들 모두는 그런 경험적 사용조차 가능하게 하는 아프리오리한 요소나 토대이기도 하다.<sup>62)</sup>

인간의 인식 능력은 경험 대상과 관련하여, 즉 경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동일한 인식 능력은 바로 그런 경험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아프리오리한 요소나 토대도 지니고 있다. 인식 능력을 그 경험적 사용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식 능력의 경험적 측면이라면, 그런 경험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아프리오리한 요소나 토대와 관련하여 고찰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동일한 인식 능력의 선형적 측면이다. 슈미트가 주

61) Schmidt(2008, 472).

62) 『순수이성비판』 A115.

장하는 ‘선험적 인지 구조의 경험적 인지 구조로의 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슈미트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사소한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주장은 『인간학』과 별개로 『순수이성비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주장이며, 칸트는 굳이 이 주장을 『인간학』을 통해 새삼스럽게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째 시도는 어떻게? 위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순수이성비판』에서 이미 칸트는 다양한 인식 능력이 경험적 측면과 선험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의도적으로’ 선험적 측면에 대한 고찰로 논의를 한정한다. 이 의도는 『순수이성비판』의 선험 철학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칸트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아프리오리하게 기원함이 틀림없으면서 아마도 단지 우리의 감각능력의 표상들을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는 인식이 우리의 경험 중에도 섞여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에서 우리가 감각능력에 속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 해도 어떤 근원적인 개념들과 그 개념들에서 산출된 판단들이 남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아프리오리하게, 즉 경험에서 독립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감각능력에 현상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저 경험이 알려줄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아니면 적어도 말할 수 있다고 믿도록 만들고, 그런 주장들이 순전히 경험적인 인식은 제공할 수 없는 참된 보편성과 엄격한 필연성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sup>63)</sup>

우리는 다양한 인식 능력들을 경험적으로 사용해서 감각능력의 표상들을 얻고 그 표상들을 연결함으로써 인식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런 경험적 인식은 우리 인식 능력의 경험 독립적인, 즉 아프리오리한 어떤 요소에 의거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인식 능력의 아프리오리한 요소들은 단지 경험적 인식이 가능하기 위한 근거나 토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보편적이고

63) 『순수이성비판』 A2.

필연적인 인식, 즉 아프리오리한 인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순수이성비판』의 일차적 목표는 경험적 인식의 토대이자 아프리오리한 인식의 원천이 되는 우리 인식의 아프리오리한 요소를 발견하고 입증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칸트 선형 철학의 과제는 잔코비악과 왓킨스가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경험적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조건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sup>64)</sup> 경험적 인식의 ‘아프리오리한’ 조건을 해명하는 것이다. 잔코비악과 왓킨스가 『인간학』에서 주목한 경험적 인식의 ‘경험적’ 조건에 대한 고찰은 『순수이성비판』의 선형 철학적 기획에서 의도치 않게 미완의 부분으로 남겨진 부분도 아니고, 하물며 『인간학』을 통해 선형 철학적 기획을 완성하고자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의도적으로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은 선형 철학의 본래적 기획에서 배제된 것이다. 『순수이성비판』의 아프리오리한 인식 조건에 대한 해명과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조건에 대한 해명을 통해 칸트의 선형 철학이 완성된다는 잔코비악과 왓킨스의 주장은 지나친 과장 혹은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을 『순수이성비판』과 연속된 철학적 기획의 일부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인식 능력들에 대한 『인간학』의 분석을 통해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에서 규명된 선형적 인지 구조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발현되는지 입증하려 하지도 않았고, 아프리오리한 인식 조건에 대응하는 경험적 인식 조건을 해명함으로써 인간 인식의 모든 조건을 망라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을 발굴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 자체가 폄하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이런 시도는 『인간학』의 의의를 인식론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은 『순수이성비판』과 연속된 철학적 기획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순수이성비판』의 인식론적 논의를 보충할 수 있다. 칸트 스스로 고백하듯이 『순

64) Jankowiak & Watkins(2014, 62) 참조

수이성비판』은 “순전히 학술적인 건조한 진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직관적(감성학적) 분명성, 즉 구체적인 실례나 다른 설명과 같은 직관을 통한 분명성”이 부족하다.<sup>65)</sup> 다양한 인식 능력들과 관련된 『인간학』의 풍부한 실례나 설명은 『순수이성비판』의 부족한 직관적 분명성을 보충할 수 있다.<sup>66)</sup> 둘째로, 『인간학』은 굳이 『순수이성비판』과의 직접적 연속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경험적 인식 이론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은 칸트에 의해 새롭게 모색된 경험 심리학의 일부로 고찰될 수 있다. 앞서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듯이 칸트는 신체와 결합된 영혼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로서 기존 경험 심리학의 사변성을 비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응용 철학”으로서의 경험 심리학이 “(경험적 자연이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인간학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67)</sup> 『인간학』의 경험적 인식 이론을 응용 철학인 경험 심리학의 일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행복 실현을 위한 영리의 학이라는 실용적 인간학의 이념에 부합하게 칸트의 경험적 인식 이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잡다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풍부한 칸트의 논의들에도 새롭게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칸트, 인간학, 인식(인지), 경험, 심리학

65) 『순수이성비판』 Axviii.

66) 예컨대 Brook(1994, 9) 참조.

67) 『순수이성비판』 A848-849/B876-877.

[참고문헌]

- 김수배 (1994). 볼프의 경험심리학과 칸트의 인간학. 철학, 42, 269-293.
- 김수배 (1995). 칸트의 인간관 - 실용적 인간학의 이념과 그 의미. 철학연구, 37, 171-191.
- 권오상 (2013). 칸트의 인간학적 사유의 형성과정과 그 철학적 의미. 철학논집, 34, 131-153.
- Brandt, R. (1991). Beobachtungen zur Anthropologie bei Kant(und Hegel). In Hespe, F. & Tuschling, B. eds. Psychologie und Anthropologie oder Philosophie des Geistes. Stuttgart: Frommann-Holzboog, 75-106.
- Brandt, R. (1999). Kritischer Kommentar zu Kants Anthropologie in pragmatischer Hinsicht(1798). Hamburg: Meiner.
- Brandt, R. & Stark, W. (1997). Einleitung. In Kant, I. Kants gesammelte Schriften. XXV(Vorlesungen über Anthropologie). Hrsg. Königliche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zu Berlin.
- Brook, A. (1994). Kant and the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A. ed. (2014). Kant's Lectures on Anthropology - A Cri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rson, P. R. (2003). Freedom and Anthropology in Kant's Mor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spe, F. & Tuschling, B. eds. (1991). Psychologie und Anthropologie oder Philosophie des Geistes. Stuttgart: Frommann-Holzboog.
- Jacobs, B. & Kain, P. eds. (2003). Essays on Kant's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nkowiak, T. & Watkins, E. (2014). Meat on the bones: Kant's account of cognition in the anthropology lectures. In Cohen, A. ed. Kant's Lectures on Anthropology - A Cri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7-75.
- Kant, I. (1900-2009). Kants gesammelte Schriften. Hrsg. Königliche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 zu Berlin.
- Kant, I. (1998). Kritik der reinen Vernunft, Hrsg. Schmidt, R. Hamburg: Meiner.
- Kant, I. Translated by Louden, R. B. (2006). Anthropology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ehn, M. (2001). Immanuel Kant: A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ehn, M. (2006). Introduction. In Kant, I. Translated by Louden, R. B. *Anthropology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ii-xxix.
- Lehmann, G. (1969).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Interpretation der Philosophie Kants*. Berlin: de Gruyter.
- Lorini, G. & Louden, R. B. eds. (2018). *Knowledge, Morals and Practice in Kant's Anthropology*. Palgrave(eBook).
- Louden, R. B. (2000). *Kant's Impure Ethics: From Rational Beings to Human Be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uden, R. B. The moral dimensions of Kant's anthropology. In Lorini, G. & Louden, R. B. eds. (2018). *Knowledge, Morals and Practice in Kant's Anthropology*. Palgrave(eBook), 101-116.
- Schmidt, C. M. (2008). Kant's transcendental and empirical psychology of cognition.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39. 462-472.
- Sturm, T. (2009). *Kant und die Wissenschaften vom Menschen*. Paderborn: Mentis.
- Wilson, H. L. (2006). *Kant's Pragmatic Anthropology: Its Origin, Meaning, and Critical Significance*. New York: Sunny.
- Wood, A. W. (2003). Kant and the problem of human nature. In Jacobs, B. & Kain, P. eds. *Essays on Kant's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8-59.
- Zammito, J. H. (2002). *Kant, Herder, and the Birth of Anthrop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국문초록]

칸트의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간학』은 1798년 초판이 출판된 이래로 오랜 기간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인간학』은 다른 견해를 반박하고 특정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이론서가 아니라 단순히 잡다한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많은 학자들은 『인간학』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칸트 철학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사실 그런 시도들 중 대부분은 주로 칸트 윤리학과 『인간학』의 연관성에 주목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몇몇 학자들은 칸트 윤리학이 아닌 칸트 인식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간학』의 의의를 밝히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간학』에 담긴 경험적 인식 이론의 한계 그리고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II장에서 칸트의 인간학적 기획의 기원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III장에서 『인간학』의 구성과 이념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학』이라는 저작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련한 다음 우리는 IV장에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간학』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시도들은 『인간학』에 담긴 경험적 인식 이론을 『순수이성비판』과의 연관성 속에서 재구성하는데, 우리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시도를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V장에서 우리는 앞서 검토한 두 가지 시도의 한계를 밝히는 동시에 『인간학』에 담긴 경험적 인식 이론의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 Kant's *Anthropology* from an Epistemological Point of View – Kant's Empirical Theory of Cognition Reconstructed from the *Anthropology*

Hong, Woora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ant's *Anthropology from a Pragmatic Point of View* has not attracted academic interest since its publication in 1798 because it was treated as a practical book that simply conveys miscellaneous information, rather than an academic book that supports a particular theory and refutes other theories. But recently, many scholars ar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Anthropology* in order to discover new aspects of Kant's philosophy that have been neglected until now. Although most of these attempts focus main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ant's ethics and the *Anthropology*, some scholars try to clarify its significance in connection with Kant's epistemology rather than his ethic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latter attempts of reinterpreting the *Anthropology* from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and clarify the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the empirical theory of cognition contained in the book. We first look into the origin of Kant's anthropological project in Chapter II, and then deal with the constitution and its guiding idea of the *Anthropology* in Chapter III. After these preliminary steps to prepar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entire work, we examine attempts to reinterpret the *Anthropology*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in Chapter IV. These attempts try to reconstruct the *Anthropology*'s empirical theory of cognition in connection with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and we will examine two representative attempts in detail. In conclusion, in Chapter V, we clarify the limitations of the two attempts previously examined, and at the same time present the significance of the empirical theory of cognition in the *Anthropology*.

**[Keywords]** Kant, anthropology, cognition, experience, psychology

논문투고일: 2021.3.24 / 논문심사일: 2021.4.14 / 게재확정일: 2021.4.22.

**[저자연락처]** wooram@gmail.com